

#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5.

I. 일반개황 .....	1
II. 경제동향 .....	2
III. 정치·사회동향 .....	6
IV. 국제신인도 .....	8
V. 종합의견 .....	9

## I. 일반개황

면적	587천km <sup>2</sup>	G D P	97억 달러 (2015년)
인구	24.2 백만 명(2015년)	1 인 당 GDP	402 달러 (2015년)
정치체제	공화제(대통령중심제)	통화단위	Malagasy Ariary (MGA)
대외정책	친서방 자유주의	환율(달러당)	2,940.1 (2015년 평균)

-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는 1인당 GDP가 402 달러(2015년 기준)에 불과한 최빈국이나 한반도의 2.7배에 달하는 국토면적(세계 46위)과 약 2,4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. 또한 말레이-인도네시아족, Croitiers족 등 17개 종족과 토착신앙, 기독교, 이슬람교 등으로 구성된 다인종, 다종교 사회임.
- 독특한 자연경관과 광활하게 펼쳐진 열대 해안, 지리적 독립성에 기인한 특이 생물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국가이며 니켈, 크롬, 티타늄 및 인근 해역의 유전 등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.
- 국제사회의 원조 및 외국인투자 확대에 힘입어 2000년대 초 연평균 5% 대의 성장을 달성하였으나, 2009년 3월 쿠데타에 의한 군사독재 정부 집권, 과도정부 수립 등 일련의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음.
- 이후 2014년 대선에서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(Rajaonarimampianina)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불안이 다소 완화되었으며, 국제사회의 원조가 재개됨에 따라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.

## II. 경제동향

### 1. 국내경제

< 표 1 >

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 <sup>e</sup>	2016 <sup>f</sup>
경제성장률	3.0	2.3	3.3	3.0	4.1
소비자물가상승률	5.7	5.8	6.1	7.4	7.2
재정수지 / GDP	-2.6	-4.0	-2.3	-3.7	-3.1

자료: IMF

#### □ 정치 불안 완화에 따라 경제성장률 회복세 시현

- 마다가스카르는 2009년 군부의 쿠데타에 따른 일련의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서방의 경제 원조가 중단되고 관광산업이 위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.
- 그러나, 2014년 대선 실시 후 정치 불안이 다소 완화된에 따라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. 2015년 경제성장률은 엘니뇨 현상에 따른 농업 위축으로 전년(3.3%) 대비 소폭 하락한 3.0%를 기록하였으나, 2016년에는 광산 등 분야별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라 4.1%로 상승할 전망이다.

#### □ 농작물 생산 감소, 환율 상승 등에 따라 물가상승률 상승 추세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치불안의 완화에 따른 경제성장세 회복, 연료 보조금 감축 정책 시행 등에 따라 2013년 이후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.
-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가격 상승, 아리아리(Ariary)화 가치 하락\*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.3%p 상승한 7.4%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.

\* 환율 상승 추이(아리아리/달러): 2,195('12) → 2,207('13) → 2,415('14) → 2,940('15)

## □ 인프라 투자 지출 확대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지속

- 재정수지는 협소한 세수기반, 재정지출의 50%에 달하는 공공부문 투자 증가로 최근 수년간 GDP 대비 2~4%대의 만성적인 적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음.
-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빈곤 감축을 위한 사회·복지 분야 투자 지출 증가로 전년(2.3%) 대비 상승한 3.7%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는 세수기반 확대 노력에 힘입어 3.1%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.

## 2. 경제 구조 및 정책

### 가. 구조적 취약성

#### □ 1차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대외적 충격에 취약

- 농업 부문이 GDP의 25.8%, 고용인구의 80%를 차지하는 등 전형적인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기상조건, 농작물 수급 및 국제가격 등 외부 요인의 변동에 취약함.
- 산업별 GDP 구성(2015년): 농업 25.8%, 제조업 16.1%, 서비스업 58.1%
- 주요 농산물은 쌀, 커피, 바닐라 등이며 새우, 참치 등 수산업도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. 그러나 관개시설 부족, 도로·항만 등 인프라 미비로 인해 농·수산 제품의 운송 및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### 나. 성장 잠재력

#### □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보유

- 티타늄(세계 7위), 코발트(세계 9위), 니켈(세계 12위) 등 각종 광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아프리카에서 탄자니아와 더불어 자원 투자 유망국으로 부상하였음. 다만, 최근 광물 가격 하락세로 인해 투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.
-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사업, 타로아그나로 티타늄 철광석 개발사업, 크라오마 광업공사의 보크사이트 채굴 등이 있으며, 석유 또한 외국 메이저 석유업체가 서남해를 위주로 시추작업을 진행 중임.

## □ 관광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

- 마다가스카르는 독특한 자연경관과 광활한 열대 해안, 지리적 독립성에 기인한 특이 생물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국가로, 2013년 기준 관광산업의 GDP 기여도가 15.9%에 달함.
- 정부는 2003년부터 관광업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로, 철도, 항공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해왔으며, 현재 연간 약 25만 명 수준의 관광객을 2020년까지 4배로 증대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.
- 다만 관광산업 호조에 따른 신설 호텔, 레스토랑의 신규인력 수요 증가세에 비해 청년인력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.

## 다. 정책성과

### □ 조세 개혁을 통한 세수 확대 노력

-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2014년 말 「2015~20 국가개발계획(PND)」을 통해 세수 확충을 최우선과제로 수립하였음.
- 마다가스카르는 과세되지 않는 비공식 경제(informal economy)의 비중이 높아 세수기반이 협소하며, 특히 군부 쿠데타에 의한 과도정부 시기('09~'13)에 불법적 탈세가 만연하였음.
- 이에 정부는 면세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조세행정 개혁을 통해 징세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음.
- IMF는 2020년 마다가스카르의 조세 수입이 2015년의 약 2배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.

### □ 국제기구의 자문을 통한 경제개혁 추진

- 마다가스카르는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노선을 버리고 World bank의 지침에 따라 민영화 추진, 수출가공지역(Export Processing Zone) 지정 등 구조개혁을 추진해왔음.
- 2002년 이후에는 IMF 및 World bank의 자문을 받아 빈곤감소 및 성장 촉진(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, PRGF)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양호한 경제성장, FDI 확대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음.

### 3. 대외거래

< 표 2 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 <sup>e</sup>	2016 <sup>f</sup>
경 상 수 지	-685	-621	-34	-211	-289
경 상 수 지 / G D P	-6.9	-5.9	-0.3	-2.2	-3.0
상 품 수 지	-1,111	-851	-609	-431	-404
수 출	1,519	1,922	2,130	2,223	2,320
수 입	2,630	2,773	2,739	2,654	2,724
외 환 보 유 액	1,048	773	642	614	-
총 외 채 잔 액	4,344	4,567	4,760	5,083	5,523
총 외 채 잔 액 / G D P	45.1	43.7	48.1	45.4	43.8
D S R	2.2	1.0	1.9	2.0	2.1

자료: IMF, EIU, OECD.

#### □ 상품·경상수지 만성적 적자 기조 지속

- 마다가스카르는 농작물, 의류 등 1차 상품을 수출하고 석유제품 등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상품·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음.
- 아프리카성장기회법\*(AGOA)에 따른 무역 특혜로 상품수지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으나, 광산 개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송금 증가로 인한 소득수지 악화로 경상수지는 2015년부터 다시 악화될 것으로 보임.

\*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을 위한 미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으로, 아프리카 40개 국가에 대해 대미 수출 시 무관세·무쿼터 혜택 제공

#### □ 경상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추세

- 경상수지 적자 지속, 2012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감소 등으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2012년 10.5억 달러에서 2015년 6.1억 달러로 40% 이상 감소하여 월평균 수입액 대비 1.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.

□ 총외채잔액은 증가 추세이나 D.S.R은 안정적인 수준

- 인프라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대외차입 증가로 총외채잔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50억 달러를 상회하였음. 반면,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.S.R)은 수 차례 채무탕감을 받음에 따라 2%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임.

### Ⅲ. 정치·사회동향

#### 1. 정치안정

□ 쿠데타 종식에 따른 신정부 출범으로 정치불안 다소 완화

- 2009년 수도 안타나나리보의 시장인 Andry Rajoelina가 군부의 지원 아래 쿠데타를 일으켜 당시 대통령인 Ravalomanana를 축출하고 과도정부를 수립하였음.
- 쿠데타 이후 前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도정부 반대 시위 발생, 국제기구의 원조 중단 등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극심한 정정불안과 경기 침체를 겪음. 그 후 2014년 1월 치러진 대선에서 Rajaonarimampianina 대통령 당선 및 신정부 출범에 따라 정치불안이 다소 완화되었음.

□ 대통령 탄핵 소추 등 여·야간 갈등 요인 잠재

- 2015년 5월 마다가스카르 의회는 재적의원 151명 중 125명이 표결에 참석, 그 중 12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Rajaonarimampianina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하였음.
  -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대통령의 교회 연설 참석 등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 원칙 위반, 선거공약 이행 실패에 따른 국정운영 무능 등임.
- 다만, 동년 6월 헌법재판소가 의회 측의 탄핵 사유가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대통령의 의무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동 탄핵안을 기각하여 사태가 다소 진정되었음.

## 2.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

### □ 전력난에 따른 시위 발생

- 마다가스카르는 전력 인프라 미비로 인해 전력보급률이 15%에 불과하는 등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음.
- 세계경제포럼(WEF)의 2014-15 글로벌경쟁력지수(GCI)에 의하면 마다가스카르의 전력 공급은 144개국 중 130위로 최하위 수준임.
- 2014년 12월 동부 지역 Toamasina에서 시민 수백 명이 전기회사에 방화, 약탈 등 정전에 항의하는 폭력 시위가 발생하여 시민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.

### □ 극심한 빈곤 및 자연재해 빈발에 따른 생활난 가중

- 마다가스카르는 2015년 기준 1인당 GDP가 402달러, 세계 181위인 최빈국이며 인구의 약 70%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음.
- 또한 2014~15년 중 가뭄, 홍수, 산사태 등 복합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생활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.
- 2014년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페스트 감염으로 40명이 사망, 메뚜기떼 습격에 따른 가뭄으로 수 십명이 아사하였으며, 2015년 2월에는 3개월 간 계속된 폭우와 산사태로 22명이 사망하는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함.

## 3. 국제관계

### □ 신정부 출범 후 국제사회 지지 회복

-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연합(African Union)과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(SADC)\*의 회원국이었으나, 2009년 Rajoelina의 쿠데타 집권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금지 조치 등 제재의 대상이 되었음.

\* 1992년에 창설된 남아프리카 15개국의 지역 협력체로 총인구 2.7억 명, 총 GDP 5,755억 달러이며, 마다가스카르는 2005년 1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

- 그러나, 2014년 1월 민주선거 실시에 따른 정권교체 및 헌정질서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제재가 해제되었으며, 회원국 자격도 회복하였음.



- 한편 미국, 유럽 등 서방 국가들 또한 쿠데타 발생 후 원조를 중단하였으나, 신정부 출범 후 원조를 재개함에 따라 2013년 이후 원조금액이 증가하고 있음.

\* ODA 수혜액 추이(억 달러): 8.4('08) → 4.7('10) → 3.7('12) → 5.8('14)

## IV. 국제신인도

### 1. 외채상환태도

#### □ 국제기구에 의한 수 차례 채무재조정 경험 보유

- 파리클럽에 의해 1981년 이후 10여 차례 채무재조정을 받았으며, 2004년에는 고채무빈국(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, HIPC) Initiative의 완결시점에 도달하여 19억 달러(현재가치 8.4억 달러)의 채무를 탕감받았음.
- 아울러 IMF, IDA, AfDF의 다자채무탕감 프로그램(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, MDRI)을 통해 2006~09년 중 24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았음.

#### □ 외채구조는 중장기 위주로 비교적 양호한 편

- 총외채 중 중장기 외채가 90% 이상을 차지하며, 2015년 9월말 기준 ECA 앞 외채 역시 254백만 달러 중 중장기 외채가 249백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외채구조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.

### 2. 국제시장평가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당 행	E* (2013. 8)	D2 (2011. 5)
OECD	7등급 (2015. 6)	7등급 (2014. 6)

\* OECD 등급 원용

※ 동국은 S&P, Moody's, Fitch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

### 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☐ 국교수립: 1962. 6. 25 (북한과는 1972. 11. 16 수교)
- ☐ 주요협정: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('08)
- ☐ 해외직접투자 현황: 2015년 말 기준 11건, 1,648,459천 달러(누계기준)
- ☐ 교역규모

<표 4> 한 · 마다가스카르 교역 규모

단위: 천 달러

구 분	2013	2014	2015	2016.4	주요 품목
수 출	120,210	26,256	24,386	7,223	자동차, 합성수지
수 입	75,552	123,132	85,585	23,296	니켈제품, 의류, 곡식류
교역규모	195,762	149,388	109,971	30,519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## V. 종합 의견

- ☐ 2009년 쿠데타에 따른 군사독재 정부의 집권에 따른 정치적 격변으로 마이너스(-)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를 겪었음. 그러나 2014년 정권 교체로 정치 불안이 다소 완화되었으며, 광산 등 인프라 투자 증가에 힘입어 2016년 경제성장률은 4.1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.
- ☐ 세수 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세수 기반, 조세행정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 경상수지 역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적자를 지속하는 등 쌍둥이 적자를 시현하고 있음.
- ☐ 2014년 Rajaonarimampianina 대통령 당선으로 과도정부 시기에 비해 정치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, 대통령 탄핵안 제기 등 여·야간 갈등 요소가 잠재해있음. 한편,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인해 시민들의 시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불안 요인도 상존함.

-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인프라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대외차입 증가에 따라 40% 대를 기록하는 등 다소 높은 수준임. 다만, D.S.R.은 국제기구에 의해 수 차례 외채 탕감 및 리스케줄링을 받음에 따라 2%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
조사역 조재동(☎02-6255-5727)  
E-mail : jjd8948@koreaexim.go.kr